

한국대학과 21세기 밀레니엄이 충돌한다

이득재 호성기톨릭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20세기는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고 한국 대학은 기로에 서 있다. 20세기는 문을 닫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한국 대학은 21세기 새로 다가올 밀레니엄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 올 21세기에 줄 것을 한국 대학은 아무 것도 쥐고 있지 않다. 초조하다. 절박하기만 하고 진땀까지 날 지경이다. IMF의 요구로 LG반도체와 대우전자 간의 빅딜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만간 한국 대학사회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간 빅딜, 일부 대학 퇴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일거에' 빅뱅현상처럼 벌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IMF가 아니었다면 재벌들이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보였을까? 대학의 학부제 도입은 또 국가라는 외부로부터 온 대학 구조조정 방식이 아닌가. 그러나 정작 학문의 제편성이나 문화적인 생산력의 창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행정조직상의 구조조정만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사회 부문의 빅딜이나 퇴출처럼 한국 대학을 '갑자기' 무너뜨릴 조짐이 대학사회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대학의 학부제는 그것을 도입한 순간부터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굴비 열 마리를 묶어 한 짝으로 만들

듯이 이 학과 저 학과 유사한 학과들을 묶으면 학부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 말이다. 이것은 순전히 행정상의 논리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이라는 교개위의 개혁안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대학개혁이란 학교 안의 자판기 커피값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1년치 등록금 면제 등으로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학부제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우리에게 복합적인 지식형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매장코너들처럼 기존의 학과들에서 나타나는 학문편식성도 우려할 만한 것이다. 백화점 2층에 숙녀복 매장이 있듯이 대학교 어느 건물 2층엔 'OO' 학과 사무실이 있다. 그래서 'OO' 학과에 들어온 학생은 'OO' 학에 중점을 두고 공부한다. 나머지 졸업하기 위해 모자라는 학점은 소위 교양과목을 들어가며 벌충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부제의 취지와 관계없이 일부 대학은 학문잡식성을 소화할 만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더러, 학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각 학부의 커리큘럼은 학부제에 실제로 걸맞지 않다. 교양과목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대학 바깥의 사회에서 이해하듯이 꽃꽂이나 서예를 하는 것을 교양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교양과목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가령 '차(茶)와 예절' 같은 것

을 커리큘럼에 넣는다면 이것은 교양과목이 아니다. 교양이란 인간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동물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를 인간으로 형성하고 도야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여기서 '차와 예절'이 인성도야에 적당하므로 교양과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인성도야, 인성교육이야말로 우리의 교양을 망쳐왔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이 인간을 형성한다는 것은 타인과 만나 사회를 이루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교양이란 이러한 능력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이다. 문제는 교양과목만이 아니다. 학문 전체에 걸쳐 형식적으로만 학부제이지 학과제가 여전히 존속함으로 앞으로 필요하게 될 복합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문의 재편성은 꿈도 꾸고 있지 못하다. 정작 대학개혁에 중요 사안인 학문들간의 구조조정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개혁의 핵심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위에서 말했던 대로 학문의 재편성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획능력, 그리고 문화적 생산력의 창조와 발전에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필자는 신문에서 독일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있다. 7, 8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암담작전'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에 관한 것이었는데, 교실수업은 여러 조로 나누어 조마다 답에 연관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쓰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조는 답이 자라는 동안 측정해 두었던 몸무게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가며 수학을 공부하고 또 어떤 조는 답의 사회에서 일어난 힘센 답과 약한 답의 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사회과목을 익힌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9학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교섭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노동론' 수업을 자연스럽게 익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로 치자면 중학교 1, 2, 3학년에 해당하는

독일 학생들이 받는 수업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골품제와 같은 신분사회에 편입하기 위하여 '학력'을 '자본'으로 삼아 입시준비를 하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학력자본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회의 낙오자로 찍히는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별다른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미끼 구실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대학교에 필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폐단은 결국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와 연관되기 마련이다. 서울대학교는 신분제 하의 진골이나 왕골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거기서 일단 성공만 하면 사회적으로 우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요즘에는 신분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사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법도 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학문의 재편성이 어려운 것은 정책상의 문제, 기획능력의 부재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학력사회에서 탈락하기를 거부한다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구분이 자연히 생기기 마련이다. 비인기학과를 졸업하면 직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남들에게 뒤진다는 통념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시철만 되면 인기학과에 학생들이 몰리고 이런 현상은 이번 입시에서도 영락없이 나타났다. 대학당국도 이제는 '거대한 학원'으로 전략한 듯 학생들을 끌어 모으기에 여념이 없으며 국가는 대학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회사가 부도나면 문을 닫듯이 대학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당국이 쫓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는 더 이상 '학문'에 관해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와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어떻게 통합하고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놓고 공개적인 토론 한 번 벌이는 일 없이 미국식의 실용주의 노선이 찬미되고 지식은 이미 한낱 기술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가 흔히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라고 말하듯이 지식의 기술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까지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학생들까지도 아직까지 '전공을 살린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전개될 지식사회, 지식정보사회에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타인보다 우위에 있으려면 기술화된 지식의 습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식 때문에 지식의 기술화, 실용화만이 강조된다. 졸업 후 당장 써먹을 도구만을 찾는 것이다. 대학의 단과대학인 외국어대학의 경우 이러한 폐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강의실과 학원강의실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정보화' 바람에 시청각매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여 대학강의실이 때로는 기존의 비디오방을 확대한 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세계화' 바람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불기 시작한 영어교육은 어학의 실용화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그 활용범위가 좁다. 실제 사회에 나가 영어를 얼마나 '써먹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학문의 재편성과 연관한 기본원칙은 지식의 기술화를 인정하되 지식이 기술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기술을 제도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은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안에 정보화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를 하든 컴퓨터로 공문서를 처리하든 정작 일은 하나도 완성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대학에서 지식생산과 수용은 여전히 고답적인 길을 밟고 있으며 일 대 일 대응

식의 지식 - 기술관계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이전가능한 기술'을 습득하는 쪽으로 기술의 변화가 일어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학부제와 관계없이 지식의 생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말을 응용과학적이거나 경제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기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지식의 생산이 촉진된다는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생산성이란 학문에 대해 기존의 일 대 일 대응식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학 안에 여러 형태의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협동과정은 학부제 도입으로 실시될 복수전공제와 다르다. 여러 가지 지식형태들을 동시에 습득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협동과정은 인문사회과학을, 심지어는 자연과학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의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획능력이 요구된다. 독일의 교육현장처럼 일과 교육을 일치시키는 협동과정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놓고 토론하고 그러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대학내 혹은 필요하다면 타대학과의 학문적 네트워크를 학문 분야별로(분과학문별로가 아니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 복합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통합학문적인 접근법은 가령 서구에서는 전통이 깊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애초에 대중매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시작한 것이 문화연구인데 문화연구는 학문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다. 문화연구를 대중문화연구로 축소하여 이것을 신문방송학과 영역으로 보는 것은 오해이거나 협동과정에 문화연구가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다가올 세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문화적 생산력은 현재와 같은 지식형태에서 나올 수 없다. 글비를 엮듯이 학과는 없어질지 몰라도 학문에 대한 편식증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정 학문분야를 잘게 나누어 그 부분을 독점함으로써 학문의 권력화를 꾀하는 대학사회의 관행이 현실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식생산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특정 학문분야의 권위자라는 말에 사로잡혀 있긴 하되 그 권위자의 층이 대단히 얇은 지식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인지 학문들간의 텃세가 단단히 한 몫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지식사회에 통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학과의 경계선은 타의적으로 무너질는지 몰라도 학문간의 경계선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당국은 당국대로 목전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교수들을 일선 고등학교에 파견한다든지 지연·학연에 바탕하여 수험생을 모으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어느 대학에서는 대학 내에 골프장을 신설하겠

다고 하여 언론의 거울에 비추어진 적이 있다. 학교홍보를 통해 학생이 유치되지 않고, 시설 계획을 통해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학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치를 앞세우기 전에 대학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대학당국과 교육당국이 학문들간의 구조조정을 하는 일이다. 과연 무엇이 '연구 중심의 대학' 인지 곰곰이 따지는 것이야말로 한국 대학과 21세기의 충돌에서 한국대학이 살아남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원**

이득재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구효성가톨릭대 노어노문학과 조교수로 있다. 한국러시아문학회 운영위원,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학 다시 읽기』, 『러시아문화의 이해』, 『바흐핀과 타자』 등의 저서와 『컴퓨터혁명의 철학』 등 다수의 역서, 『다니일 하름스의 '노파' 연구』 등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